

고전 소설 호칭 어휘

본 어휘집은 단어의 의미를 완벽하게 주입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.

각 단어들의 뉘앙스와 위치, 직책 등을 가늠할 수 있게 하여 고전 독해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니 적절히 참고하자.

1. 집안과 관련된 단어☆

집안과 관련된 단어는 언제나 중요합니다.

거의 모든 고전소설에 가문 관계가 나오니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는

어떤 관계인지 파악하는 정도는 꼭 필요합니다.

여식: 딸.

대부인: 남의 어머니를 높여 이르는 말.

정실: 아내를 첩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(정실부인).

시비: 곁에서 시중을 드는 계집종.

노복: 사내종(한자에 따라서 늙은 사내종을 가리킬 수도 있음).

비복: 계집종과 사내종을 아울러 이르는 말.

동복: 사내아이 종(동자할 때 동입니다).

소저: '아가씨'를 한문 투로 이르는 말.

소첩: 부인이 남편을 상대하여 자기를 낮춰 이르던 일인칭 대명사.

소자: 아들이 부모 앞에서 자신을 낮춰 이르던 일인칭 대명사.

소제: 나이가 가장 어린 아우, 말하는 이가 대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윗사람을 상대하여 자기를 낮춰 이르던 일인칭 대명사.

소생: 말하는 이가 자기를 낮추어 이르던 일인칭 대명사.

낭군: 젊은 아내가 자기 남편을 사랑스럽게 이르던 말.

부형: 아버지와 형을 아울러 이르는 말.

동기: 형제와 자매, 남매를 통틀어 이르는 말.

식솔: 한 집안에 딸린 구성원.

불초자: 아들이 부모를 상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이르는 일인칭 대명사.

부처: 부부.

존구: '시아버지'를 높여 부르는 말.

지아비: 웃어른 앞에서 자기 남편을 낮춰 부르는 말 혹은 과거 계집종의 남편을 이르는 호칭.

2. 일반 호칭

인물을 칭하는 일반적 호칭의 모음입니다. 대부분은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.

공: 청자를 높여 부르거나 이르는 말, 또는 당신, 그대의 뜻.

생: (사람의 성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는 경우) 젊은 남자를 일컫는 말.

공자: 지체가 높은 집안의 나이 어린 아들.

낭자: 처녀를 높여 이르던 말.

존사: 스승을 높여 이르던 말.

선인: 신선 또는 도를 닦는 사람.

과객: 지나가는 나그네,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.

계집: 여자나 아내를 낮잡아 이르는 말.

동자: 사내아이, 또는 종이 되려고 절에서 공부하면서 아직 출가하지 않은 사내아이.

정렬부인: 조선시대에 정조와 지조를 굳게 지킨 부인에게 내리던 칭호.

귀인: 사회적 지위가 높고 귀한 사람.

유생: 유학을 공부하는 선비.

첩: 정식 아내 외에 데리고 사는 여자. 결혼한 여자가 윗사람을 상대하여 자기를 낮추던 일인칭 대명사.

학사: 학술 연구에 전념하는 사람.

대빈: 높이 공경하고 존중하여 받들어야 할 손님.

형장: 나이가 엇비슷한 친구 사이에서 상대방을 높여 이르는 이인칭 대명사.

*형장의 이슬이 ~ 의 형장과는 다른 형장이다.

랑: 남자를 달리 이르는 말.

낭: 낭자를 이르는 말.

처사: 벼슬하지 않고 초야에 묻혀 사는 선비.

3. 왕과 관련된 단어

공부를 막 시작하신 분들이 알면 좋은 단어입니다.

왕: 상, 주상, 황상, 황제, 천자, 전하.

성상: 살아있는 자기 나라의 임금을 높여 이르는 말.

태자: 황태자, 황제의 자리를 이을 황제의 아들.

대군: 임금의 적자를 이르던 말, 또는 그에게 준 벼슬.

군: 왕의 후궁에서 난 아들.

태후: 모후, 황제의 살아 있는 어머니.

왕후(1): 왕의 아내.

왕후(2): 왕과 제후.

폐제: 폐위된 황제.

선제: 선대 황제.

과인: 덕이 적은 사람이라는 뜻. 임금이 자기를 낮춰 이르던 일인칭 대명사.

짐: 임금이 자기를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.

폐하: 황제나 황후를 존대하는 말.

성군: 어질고 덕이 뛰어난 임금.

황비: 황제의 아내.

부마: 임금의 사위.

옹주: 조선 시대 임금의 후궁에서 난 딸을 이르던 말.

차비: 둘째 왕후.

용포: 임금이 입던 정복(곤룡포).

용상: 임금이 집무를 보던 평상.

용안: 왕의 얼굴.

중전: 왕비를 높여 이르는 말.

4. 벼슬이나 직책과 관련된 단어

벼슬에 관한 호칭은 늘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.

한림학사: 고려시대 학사원, 한림원에 속한 정사품 벼슬. 임금의 조서를 짓는 일을 맡았다.

원수: 장성 계급의 하나. 대장의 위로 가장 높은 계급.

대부: 고려, 조선 시대에 벼슬의 품계를 붙이던 칭호.

사대부: 사와 대부를 아울러 이르는 말. 문무 양반을 일반 평민층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.

주부: 기록과 문서를 맡아보던 벼슬 또는 행정 실무를 맡아보던 벼슬.

사자: 명령이나 부탁을 받고 심부름을 하는 사람.

승상: 옛 중국의 벼슬. 우리나라의 정승에 해당(국무총리 정도의 직책).

*중국에는 삼공이 있었고, 승상이 가장 높았음. (삼공: 승상, 태위, 어대사부 - 전한 기준)

판서: 조선 시대에 둔 육조의 으뜸 벼슬.

진사: 조선 시대에 과거의 예비 시험인 소과의 복시에 합격한 사람에게 주는 칭호.

생원: 조선 시대에 소과인 생원과에 합격한 사람 또는 나이 많은 선비를 대접해 이르던 말.

군장: 장수.

도원수: 고려, 조선시대에 전쟁이 났을 때 군무를 통괄하던 임시 무관 벼슬.

제후: 봉건 시대에 일정한 영토를 가지고 그 영내의 백성을 지배할 권력을 가진 사람(일종의 영주).

재상: 임금을 도와 모든 관원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일을 맡던 종2품 이상의 사람.

상공: 재상을 높여 부르던 말.

감사: 관찰사(조선 시대에 각 도의 으뜸 벼슬).

서리: 관아에 속하던 말단 행정 실무에 종사하던 구실아치(그냥 일반 사원 정도의 직책).

역졸: 관원이 부리던 하인.

나졸: 조선 시대 포도청에 속하고 관할 구역의 순찰과 죄인을 잡는 일을 하던 하급 병졸.

수령: 각 고을을 맡아 다스리던 지방관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.

조신: 조정에서 벼슬살이를 하고 있는 신하.

상서: 고려 시대 육부의 으뜸 벼슬.

경: 임금이 이품 이상의 신하를 가리키던 이인칭 대명사.

관원: 벼슬아치.

총독: 어떤 관할 구역 안의 모든 행정을 관리하던 직책.

별감: 고려, 조선 시대에 조사, 감독 따위를 위하여 지방에 보내던 임시 벼슬.

급사: 고려, 조선 초기에 둔 내시부의 정9품 벼슬.

사령: 조선 시대 각 관아의 심부름꾼.

도사령: 사령의 우두머리.